

(여성학/여성운동데이터베이스) 사업 계획서

사업명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 FEMINARY	주체	온라인매체팀
사업소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여성학/여성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실 기능을 강화한다. 시기적인 면이나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형태의 작지만 알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제한적인 DB지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정보 인프라에 대한 여성주의의 고민을 담아서 FEMINARY로 한다.		
사업방향	DB가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총여의 다른 사업들(세미나, 강좌, 토론회, 기활학교, 여성노동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형태	인터넷		
실시기간	2월말에 오픈		
준비일정	1, 2월에 웹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끝내고,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 개학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필요한일	웹디자인,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내용 구성, 자료 수집 및 정리 사업 담당할 주체 선정 - 데이터베이스 외형 담당할 사람 : - 자료 수집 및 정리 상황 파악할 사람 :		
사용물품	서버, 도메인(www.ysfem.or.kr)		
예산비용	웹서버, 프로그램 구성		
내용	- 데이터베이스에서 담당할 분야에 대해서 여성운동/여성학 관련 카테고리 작성 - 자료의 형태가 아닌 주제에 따른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 여성학/여성운동 카테고리 구성 - 성매매 : 기지촌,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탈성매매, 법률 및 제도 - 여성노동 :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조, 감정노동, 노동의 재개념화, 사건별 정리 - 성폭력 : - 관련 문헌 자료(단행본, 논문, 잡지, 신문기사) 수집 및 카테고리에 따른 정리 - 부가 기능 · 여성학 도서 소개 및 서평 제공 · 세미나 커리 제공 · 여성학/여성운동 사전 · 웹 사이트 소개		
기타			

(1학기 새내기 맞이) 사업 계획서

사업명	2003 1학기 새내기맞이	주체	총여를 비롯한 모든 여성 주의자
사업개	2003년 여성주의자들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새내기맞이 사업이다. 이것은 총여 시각에서 생각해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리?		
사업방향	단순히 각 단대의 여성자치모임에만 새내기에 대한 부담을 맡기지 말고, 총여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여성주의자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금은 수동적으로 오는 새내기들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새내기들에게 적극적으로 존재를 보이는 식의 능동적이고 직접행동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업형태	직접 발로 뚫는다. 새내기맞이는 결코 쉽지 않다.		
실시기간	2월 초부터 시작하여 3~4월 중간고사 전까지 총력으로, 그 후에도 가능하면.		
준비일정	1월에 모든 계획을 다 끝내놓고 2월부터 4월 초까지 역점을 둔다.		
필요한일	- 새내기학교 간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섭외하고 교육한다. 가능하면 각 단대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없다면 가능한 그 단대 사람, 그것도 안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안 되면 총여 집행부가-.+ 미리 중운위에 제안하고, 각 단대 단운위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한다. - 자치단체들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한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기선을 잡아야 한다. - 기획 자보는 새내기들이 좀 진정할 때인 3월 둘째주부터 민주광장에 대문짝만하게 붙인다. 미리 게시판과 자리를 점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물품	어떤 것이든 가능한대로.		
예산비용	부스 설치비, 기획 자보비, 대대적인 포스터 비용 등		
내용	*새내기용 세미나 커리 *각 단대 새내기학교에 들어가기 - 여성주의 세미나를 각 단과대학 반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여성주의자 특별간사가 들어가도록 각 단대에 제안을 넣는다. - 새내기학교 기획단 구성 *수첩 나누어주기 - 단순히 책상 하나 달랑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이 때에 총여학생회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내야 한다. *기획 자보 - 새내기를 역점으로 두느니만큼 신선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홍보 - 총여잡지에 광고가 잘 들어가고, 연대 자계를 비롯한 인터넷 광고를 쓰는 것이 좋다. *자치단체들과 연계한 행사 - 포스터 거리전(동연처럼), 각 자치단체와 총여 광고를 하는 합동 포스터를 발간한다. *총여 새내기 여성학 학교 - 매년 하는 것과 시기는 같지만,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선전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세미나 커리 만들기) *새내기팀 - 필요하다. 특히 여성주의자치단체가 없는 곳의 새내기도 키워야 하기에. *학관 앞에 부스 만들기 *채플 선전전(자료집, 리플렛 등 매체 활용)		
기타	문제는 바로 얼마나 권위적이지 않고도 여력을 모아낼 수 있느냐에 있겠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가능한 한 많이 함께 하도록 한다.		

(반성폭력 팀)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반성폭력 팀 2003년 활동 계획	주 체	여량, 늘
사 업 개 소	해마다 총여학생회로 신고되는 성폭력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아마 2003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로써 반성폭력 운동은 보다 책임감 있게 지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존과 같은 문제의식을 발전 시켜,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사업방향	크게 연대 테이블을 통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는 연대회의와 연성뿌연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며, 총여 내부의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반성폭력 백서 발간 작업이 있을 것이다.		
사업형태	자료집 발간, 교양, 논의 테이블		
실시기간	2003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준비일정	모든 단위의 제안 작업이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함. 이제까지 사건들 정리		
필요한일	내부 교양, 교양 프로그램 만들기,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		
내 용	1. 반성폭력 세미나 -성폭력에 대한 많은 개념들은 끊임없는 재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부터 다시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에서부터 성폭력 운동은 시작할 수 있겠다. (겨울방학 기간, 교육국과 함께 준비. 진행)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해가 지날수록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성화 되어 가는 부분도 많은 듯 하다. 단대별 교양을 비롯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료집이나 포스터를 비롯한 실무에 위한 실무주체 연석회의와 함께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일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년간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하는 시발점인 만큼 씩씩하게 반짝이는 아이디어 특히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듯 3. 반성폭력 백서 발간 -반성폭력 팀의 주력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001년도에 하려다 못했던 작업이기도 하다. 그 때 이루어진 자료들을 잘 모아서 이어가는 것도 필요한 듯 하다. 어떠한 대상으로 어떠한 수위로 이야기 해나갈 것인지, 발간 시기는 어떠한지, 형식은 어떠한지 이야기 해봐야겠지요. 4. 단대별 반성폭력 내규 제정 -직접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단대 학생회에 제안을 하고, 의지가 있는 단대의 경우 총여학생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대별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필요하다. 사회대가 준비중에 있으니 다른 단대에도 제안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5. 연성뿌연 - 연성뿌연은 네버엔딩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음... 어서 빨리 모여야겠군!(여휴주체회의 테이블도 비슷하게 꾸려갈 수 있을 듯 하지요) 6. 교수 성폭력 사례 모으기 - 언니네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수업시간의 발언들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해야한다. 수업시간이라는 공간과 교수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발언이라는 것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체 혹은 자보를 통해서 공개 7. 연대회의 -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학단위와의 연대 테이블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교성뿌연에 제안해야할 듯		
기 타	1년 365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발빠른 대응을 해야한다.		

(문화정치국)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문화정치국 2003년 활동계획	주 체	여량, 늘
사업소개	15대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실험의 에너지로 넘쳐나리라는 낙관적인 예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입니다. 학우들의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학우들에게 쉬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여성주의 관련 사건 및 사태들을 쉽고 친숙하게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냉철한 자기반성 및 자아비판-;;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냉온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할듯.		
사업방향	'문화'를 통한 여성주의의 전파를 목표로 학우들의 일상에 파고든다. 우리의 목소리를 생생발랄한 아이디어로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한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어 보는 것.		
사업형태	월별 자보전, 여성제, 다양한 문화행사		
실시기간	2003년 내내 학기중 빠짐없이		
준비일정	1월부터 시작되는 사건정리, 토론회 준비, 세미나 등과 연계하여 준비.		
필요한일	자료수집 및 정리,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 모색		
사용물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양하게 있는대로.		
예산비용	미정		
내 용	1. 자보전 화장실 신문을 만들지 않는 대신 매달 중도 또는 학관 앞에 서너가지 정도의 테마를 잡아 자보전을 실시합니다. 크게 세 꼭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시의성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작고 사소한-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지요. 가족, 결혼, 이성친구, 동성친구,...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학기가 시작하면 학내에서 또다시 나타날 여러 파문들과 발언들을 공론화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벌어지는 일들과 교수 또는 학생들의 발언을 '이달의 BEST 5' 형식 등으로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글'뿐만 아니라 만화나 사진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 시각적으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잘 구성해야겠습니다. 자보의 내용과 관계있는 퍼포먼스나 연극, 노래, 춤 등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세미나, 매월 있을 여성주의 문화행사, 토론회, 매체 등등과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성주의 문화행사와 여성제 다양한 월별 행사들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여성제를 열어봅니다. 선거준비기간에 했던 것처럼 퍼포먼스와 노래 및 춤 등을 할 수도 있겠고, 2002년 여성제처럼 영화 상영, 공예, 강좌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주의 문화제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여성제 폐막제와 같은 무대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월경페스티벌과 같은 형식이 될 것도 같습니다. (가칭 '페미니즘 문화제') 무대라는 공간의 제약이 있고, 준고정된 관객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야외판과는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3. 그외 가능한한 다양한 행사들!! '문화'라는 말이 매우 포괄적인만큼, '문화정치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주아주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같이 해나가는것도 재미있겠지요. 내용과 형식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기 타	항상 빠릿빠릿하게,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어떻게 벌어질것인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성노동팀)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여성노동팀 2003년 활동 계획	주 체	미정
사 업 소 개	여성노동의 문제는 여성주의자들이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순위에 서 밀려나면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감이 있다. 하지만 여성노동의 문제는 노동 문제 가 아니라 여성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여성노동의 문제를 총여학생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 할 시점이라는 생각에 여성노동팀을 꾸리게 된 것이다.		
사업방향	여대생 취업 문제라는 좁은 틀 안에서 여성노동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인 여성 노동의 문제와 함께, 전지구적 가부장제 자본주의라는 거시적인 틀도 함께 분석단 위로 넣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팀인 만큼 여성노동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사업형태	여성노동학교, 3.8기획단, 메이데이 기획단, 선전전		
실시기간	3월부터 - 꾸준히		
준비일정	2월 중에 여성 노동학교 준비를 한다. 맏돌 이월을 받고, 상황 파악한다.		
필요한일	내부 세미나.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사용물품	미정		
예산비용	미정		
내 용	1. 여성노동학교 - 아마 3월이나 4월이 될 듯하다. 2. 3.8 행사 준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외부 단위와의 연대 혹은 학내에서의 행사 를 생각해본다. 3. 메이데이 준비- 학내 활동단을 기획하여 내부 세미나 및 열린 세미나를 진행한다. 자보 전이나 작은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메이데이 여/성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4. 기획자보전이나 토론회에 한 팀으로 들어간다.		
기 타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할듯		

(복지국) 사업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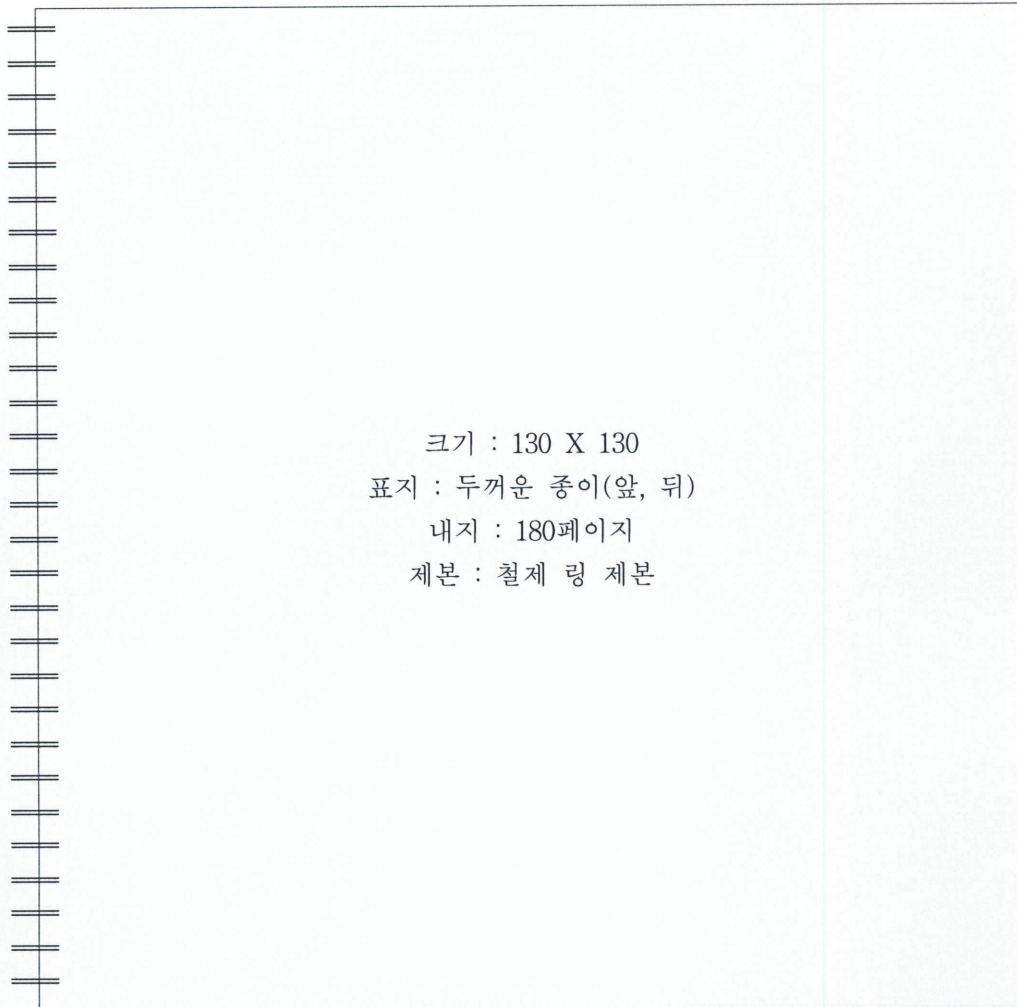
사업명	2003 복지국 사업계획서	주체	파문
사업소개	여학우들의 복지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올해는 여학우복지가 얼마나 큰 일인지 다른 단과대학과 주체들도 알게 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		
사업방향	여학생 복지에 관련해서는 총여학생회 단독으로 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각 단과대학에서 여학우들의 문제를 받아안고 부족한 부분을 총여가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 중도나 학관, 대강당같은 공간도 동아리 연합회와 총학생회와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사업형태	어떤 형태이든 총여 혼자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실시기간	지금부터 2003년 이월의 그날까지		
준비일정			
필요한일	- 각 단과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단대별 복지 테이블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어야 한다.		
사용물품	여기에 대해서 총여학생회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예산비용	복지에 관련한 부분은 총여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내용	- 단대별 복지 테이블 마련 : 여휴와 생리대 자판기, 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는 일단 복지 테이블이 성사되어서 각 단대 여성주체들과 같이 논의할 것이다. 관련 사안을 교육투쟁에서 요구해도 좋을 것이다. - 복지에 관련한 피드백 받기 :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직접 여학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필요한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에 건의란을 넣거나, 복지 관련 비정기적 화장실 신문을 찍어도 좋을 듯. - 여성제 같은 큰 행사 때 복지 관련하여 무언가 여학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한다. 무엇이 좋을까?		
기타	회장단이 중운위에서 얼마나 압박하느냐, 그리고 복지국장이 학복위 위원장과 어떻게 친해지느냐에 따라서 올해 사업이 결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인터넷 사업) 사업 계획서

사업명	총여학생회 인터넷 사업	주체	뜻
사업 소개	인터넷은 그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비일비재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마초이즘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주도적인 흐름 속에서 여성주의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망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성주의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작업이 이번 총여학생회에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15대 총여의 인터넷 관련 중심 사업은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소통 창구들(여자만의 방, J-페미니스트)입니다.		
사업방향	1. 총여가 구성하는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 단지 이용하는 사람이 방문자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2. 우리의 생각을 잘 담아낸다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에서 여성주의의 성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시다.		
사업형태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기간	2월 중순까지 완료 새내기 맞이할 때 광고		
준비일정	1월 중순까지는 틀 구성 완료 그 다음은 내용채우기		
필요한일	홈페이지 제작		
사용물품			
예산비용	100,000		
내용	1. 여성학 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 2. 여성주의, 총여 반성폭력 정치적으로 올바른 성교육 여학생 휴게실 (사이버 건의함) 3. 여자만의 방 전체 게시판 공지사항 여성관련 뉴스 업데이트 : 신문기사나 사건 소식 중에서 지속적으로 올린다.		
기타			

(여학생 수첩)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2003년 여학생 수첩	주 체	총여학생회
사 업 소 개	새학기 시작전 신입생 오리 때 기존의 학생수첩과 차별화된 '여학생 수첩'을 발행해서 무료 배포한다.		
사업방향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학생으로 대학을 보내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새내기를 대상으로)		
사업형태	수첩 제작(130 x 130 사이즈, 180피, 2000부, 첼제링 제본)		
실시기간	2003년 2월 중순까지 제작 완료. 오리 때 배부		
준비일정	1월 말까지 컨셉 및 내용 구성 완료, 2월 초에 제작실무들어감.		
필요한일	예산마련 다이어리 부분 구성 수첩 내용 구성		
사용물품	없음		
예상비용	4,500,000		
내 용	다이어리 부분 2003, 2004년 달력 : 한 페이지씩 총 두페이지 monthly(2003.2~2004.1) : 두 페이지에 한달, 총 24페이지, 학사일정, 여성관련 사건 공백페이지 : 줄 있는거, 줄 없는거(1:2비율) 생리주기달력 : 내용포함해서 총 2페이지 내용 부분 0.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소개 1. 성폭력 성폭력이란? / 반성폭력 학칙, 새터 내규소개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조치 방법 2. 성교육 3. 학교생활 졸업하기 전에 이걸 해보자 학내 단체/모임 소개 여학생처, 여성인력개발연구원, 성폭력 상담소, 여성클리닉,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모임 학교 전화번호 4. 생활문화정보 여학생 생활정보 : 혼자 여행가기, 가볼만한 식당, 카페, 물건 사기 여성 문화 정보 : 여성학 추천 도서, 영화, 음악, 행사 등 소개 5. 여성관련 단체 연락처 전화번호, 웹사이트 소개		
기 타	중성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캐릭터		



크기 : 130 X 130
표지 : 두꺼운 종이(앞, 뒤)
내지 : 180페이지
제본 : 철제 링 제본

(이렇게 생긴 수첩을 만들 계획입니다.)